

경제

“신종플루 막아라”... 지역경제계 비상

유통업체, 갓 살아난 소비심리 위축될까 ‘전전공공’

기아차·광양제철 등 방역시스템 강화 예방 총력전

미국이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신종플루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 주요 기업 등 산업계는 직장 내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자체 방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는 갓 살아난 소비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신종플루 위기대처 방안을 별도로 운영하는가 하면 사육 곳곳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최근 ‘유스퀘어’에 적외선 손 소독기 3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터미널 대합실 내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차량 내 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급히 추가 예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공장 내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할 한편 전문가가 상주하는 산업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대처반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공장 작업라인마다 체온계를 배치하고 분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종플루 발생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신속히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는 구내 식당 3곳에 열 감지기를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식당 근무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식당에 고열 환자를 감지할 수 있는 열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가려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발열 체크장치를 설치,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들

은 기준에 설치한 손 소독기, 체온측정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백화점 3사는 각 매장에 설치된 손 소독기와 체온 측정기 등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소독제나 비누 등의 물량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백화점들은 가을 정기세일이 끝난 뒤 매출이 하락하는 시점에 신종플루가 다시 기승을 부려 전반적

인 소비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금용계에선 광주은행이 마스크 3천여개를 구입, 전 직원에게 나눠 줬으며 고객들과 접촉이 많은 영업점 직원들에게는 휴대용 손 세정제 2개씩을 지급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한 번 신종플루 확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용위기에다 신종플루까지 겹쳐 침체됐던 소비가 이제 갓 살아나려는 마당에 다시 신종플루가 확산 조짐을 보여 소비침체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현석·김지을기자 chad01@



손을 깨끗이 씻자

26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소독기를 이용해 손을 씻고 있다. 광주신세계 등 백화점 3사는 각 매장에 설치된 손 소독기와 체온측정기 등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신종 플루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지역백화점 가을 세일 매출 13~19% 늘어

광주·전남 지역 백화점들이 가을 정기 바겐세일(9~25일)에서 지난해보다 13~19%의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번 세일에서 지난해 동일 기간에 비해 13.4%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세일에는 화장품(45.4%), 여성정장·라제리 부문

(44.8%), 흡수제(36.9%), 명품(24.3%) 등이 매출을 주도했다. 여성 부문의 영 캐리터(4.5%)나 영레이브(6.5%), 신사 부문의 셔츠(-3.5%)나 아롱 부문(5.9%)은 다른 부문에 비해 전년과 동일하거나 낮은 신장율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지난해보다 약 17% 높은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품·해외명품(30%), 여성캐리터·여성정장(37.9%), 건강·가공(47%), 골프·아웃도어(25.4%) 등이 좋은 실적을 보였고, 패션·잡화(23%)는 다른 부문에 비해 등도 실적이 개선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특히 이번 가을정기세일과 함께 30주년 행사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

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가을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19%나 증가했다. 화장품(21%), 여성의류(18%), 가전가구(14%) 등이 이 같은 매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현대백화점 김윤환 영업기획팀장은 “기온이 낮아 의류나 가정용품 등의 시즌수요가 집중되면서 매출신장세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월상품이나 공일가 상품 또는 한정상품으로 메리트 있는 상품이 고객을 모으면서 전체적인 세일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전남 제조업 출하액 100조 육박

지난해 광업·제조업체 종사자 수 6만명

전남지역 광업·제조업체의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매출 규모가 95조 원을 넘어선 등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체 종사자 1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잠정)’ 결과, 사업체 수는 1천293개, 종사자 수는 6만1천293명에 달했다. 업체 출하액은 95조3천573억 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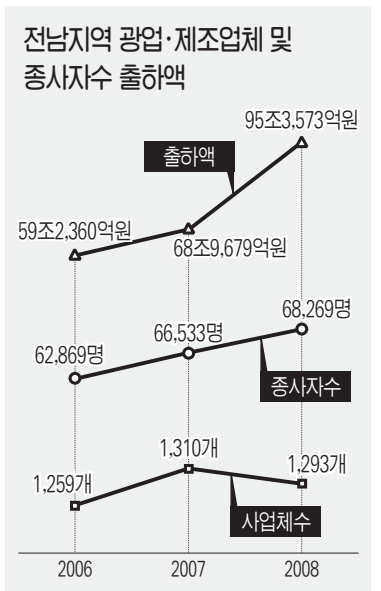
사업체 수는 전년인 2007년에 비해 17%가 감소했지만, 종사자 수는 운송장비업과 금속가공업·식품업 업종을 중심으로 1천736명이 늘었다.

출하액 또한 전년 대비 26조3천894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부가

가치도 전년 대비 4조9천225억 원이 증가한 22조3천1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도 전년 대비 2조318억 원이 증가한 21조8천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업체 감소에도 종사자 수와 매출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은 업체의 규모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사업체 19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암 150개 ▲광양 122개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 수도 ▲여수 1만5천777명 ▲영암 1만4천833명 ▲광양 1만699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는 여수 11조5천617억, 광양 6조4천183억, 영암 2조615억 순이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자료:전남도>

기아차 노조 오늘 집행부 선출

광주지회장도 선거... ‘금속노조 탈퇴’ 관심

기아차 노조가 지방장 및 광주지회장 등 집행부를 새롭게 뽑는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21대 노조 지부장과 광주지회 등 5개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투표는 광주공장 등 5개 지회별로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실시하며 오후 2시에 개표한다. 전체 투표자 수는 3만4천여명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달 3일 1·2투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기아차 지부장으로는 5명, 광주지회장은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부장 후보는 기호1번 김상구(전노회), 기호2번 김권호(기노회), 기호3번 가태희(무소속), 기호4번 박홍규(전민투), 기호5번 김성락(금속의힘) 등이다. 이 가운데 1, 2, 5번 후보는 강성파로, 3, 4번은 중도 실리파로

분류되면서 실용과 대 강성파와의 접점이 점쳐지고 있다.

광주지회의 경우 기호 1번 남철원 후보(기노회), 2번 송희홍(전노회), 3번 김성철(현장연대), 4번 이병지(전민투) 후보 등 4명 모두 연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임금협상 마무리, 고용안정 공약을 내걸었다.

관련 포인트는 강성 노동운동의 대명사인 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느냐다. 이 경우 민노총에 큰 공백이 불가피하다.

지부장 후보 중에는 가태희, 박홍규 후보 등이 금속노조 탈퇴 또는 금속노조 개혁 등을 내세고 있다. 광주지회에서도 이병지 후보가 정치투쟁 탈퇴를 공약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달러 환율

내년 1,124원

전문가 108명 전망

환율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환율(기간별 기준)이 1,124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금융기관 애널리스트와 기업 환율 담당자 108명을 대상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올 연말 1.161원, 내년 1분기는 1.140원으로 예상하는 등 당분간 급락세 없이 분기별 20원가량의 하락폭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1분기 환율이 119원 상승한 1,377원이 됐다가 2분기에는 90원이 떨어지고, 3분기도 98원이 내린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크게 작을 것이다. /연합뉴스

익산국토관리청장

장성호씨 임명

국토부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장성호(50·사직)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을 임명했다.

장 성인 익산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방부 국립묘지관리소 관리과를 거쳐 신국재공항공설계기획단 개발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과리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Real estate statistics: 코스피지수 1,657.11 (+16.94), 코스닥지수 504.77 (+0.86), 금리 (국고채 3년) 4.62% (+0.03), 원·달러 환율 1,177.60원 (-3.9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Mart, highlighting a 2010 February opening and listing various services like golf courses and escalator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offering various types of properties and services.